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304 | NOVEMBER 2022



金孝任
골롬바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2년 11월호 / 통권 304호

발행일 2022년 11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2©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304 | NOVEMBER 2022

렌즈로 보는 세상	4
함께 읽는 성경	6 요한의 첫째 서간
교회의 가르침	10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14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18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22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26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신앙과 삶	30 유서(遺書)
듣다 읽다 보다	32 고전 음악을 듣다 38 함께 읽는 세계 문학 44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50 정석의 이 도시 56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직장사목팀 소식	62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THE COVER

순교자 김효임 골롬바

그린이: 정도운 엘리아(<http://artist-jdw.com>)



요한의 첫째 서간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교구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장

요한의 첫째 서간에는 편지의 저자와 수신인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 서간을 요한이 쓴 것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서와 요한의 첫째 서간은 내용이나 문체가 대단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로써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요한1,14; 1요한1,2) 생명, 빛, 사랑, 진리 같은 개념과 그 반대 개념들인 죽음, 어둠, 미움, 거짓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에서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속죄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점을 암시할 뿐입니다. 이런 점들을 유추해 요한복음사가의 제자들이 요한의 첫째 서간을 저술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요한의 첫째 서간이 읽혔던 곳 또한 요한복음이 저술되고 읽히던 곳, 즉 소아시아 지방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은 실제 편지라기보다 명상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의 저자는 하느님이 빛이요 사랑이라는 진리를 명상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느님 사랑의 계시이며 죄악을 없애주시는 분이러 주장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이 서간을 쓰게된 동기입니다.

요한의 첫째 서간의 내용

1) 하느님은 빛이시다

하느님과 함께 하는 생활은 그리스도교인들이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참다운 신자 생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빛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죄를 멀리한다는 뜻이며, 인간들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깨



끗해지고 해방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계명을 잊지 말고 당시 교회 안에 성행한 이단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현대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하느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의 위험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참다운 신앙을 배척하는 이들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2) 하느님의 자녀

그리스도교 생활을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생활로 제시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지금 우리에게서 시야처럼 간직되어 있으며 때가 오면 완전히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을 뵈게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산다’는 말과 함께 ‘옳은 일을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죄를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불의이며, 하느님의 권리와 부성애에 대한 침해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느님의 참다운 자녀들을 드러내는 표지가 됩니다.

3)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공간과 시대에 관계없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사람, 교회 가르침과 달리 말하는 사람, 교회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4) 사랑

요한의 첫째 서간 저자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형제들처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 하느님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

요한의 첫째 서간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 ① 요한의 첫째 서간 저자는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절대없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장)
- ②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2장)
- ③ 죄를 저지르는 자는 무엇을 자행하는 사람입니까?(3장)
- ④ 신자들에게 아무 영이나 믿지 말고 그 영이 어디에 속했는지 알라고 합니까? (4장)
- 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누구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5장)
- ⑥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는 아버지와 또 그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것입니다. (1장)
- ⑦ 빛 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입니다. (2장)
- ⑧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서로 () 한다는 것입니다. (3장)
- ⑨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압니다. (4장)
- ⑩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의 승리입니다. (5장)

아래의 말씀들을 한주에 하나씩 외워봅시다

1주간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1,6).

2주간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속에 머무르고, 그에게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2,10).

3주간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3,18).

4주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4,8).



하느님 사랑의 선물 7성사

시작하며

왕태연 요셉 신부_ 의정부교구 토평동 성당

신앙생활은 성사생활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사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러나 “성사(聖事)”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사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사’라는 말은 어디에서 비롯된 말이며, 그 중요성과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정의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 은총의 가시적 표현”이라고 하는 문장일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 보이시는데,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인간이 알아챌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신다는 것이 그 설명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은총을 내려주심에 있어서 그것을 인간이 알아챌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신다는 것은 한없는 자비이며, 복된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곁을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하느님의 은총 속에 머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을 열어 보여 주신다는 것을 ‘계시(啓示)’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려는 사랑과 자비를 ‘하느님 계시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며, 가

톨릭 교회의 성사 역시도 바로 이 ‘하느님의 계시의 신비’ 안에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느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참 하느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한 참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겪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말씀과 행적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성사들의 표본이자 모범이 되는 것이며,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모든 성사들의 근원인 원성사(元聖事, Original sacrament)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베풀고 있는 성사들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동시에 우리를 예수님과 일치로 이끌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사”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말은 그리스어로 ‘뮌스테리온(μυστήριον)’ 즉, ‘신비’를 일컫는 단어가 2~3세기 고대 라틴어 번역 성경에서 ‘Sacramentum’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본래 ‘신비’를 일컫는 ‘μυστήριον’이라는 단어는 공관복음을 통틀어 세 번 사용되었습니다.(마르 4,11 : 마태 13,11 : 루카 8,10)

그리고 이 ‘신비’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심오하고 감추어져 있던 지혜”(1코린 2,7)를 의미하며 바로 그 지혜가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1코린 1,23)를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신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성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현하시고 교회에 맡기신 하느님 사랑의 신비이며,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일곱 가지의 성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사의 개수는 12세기 전까지 30개 정도 되었는데, 12세기에 들어 성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생 빅토르 후고’라는 신학자의 설명에 따라 가시적인 표징, 그리스도에 의한 제정, 은총의 포함이라는 세 가지 필수요소에 부합하는 일곱 가지로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사의 개수가 일곱 가지로 정리되었다고 해서 일생에 단 일곱 번만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곁에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성사로부터 시작해서 병자성사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일곱 가지 성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고 있으며, 바로 이 성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신앙의 여정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일곱 가지 성사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사에 관한 내용은 글로 읽어서 아는 것보다는 신앙생활을 통해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표지인 성사에 참여할 때에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희망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마태 11,25).

CORNERSTONE



"The good Shepherd" mosaic in mausoleum of Galla Placidia. UNESCO World heritage site. Ravenna, Italy. 5th century A.D. Photo by Petar Milošević

착한 목자 (The Good Shepherd)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 10,14-15)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루카 15,4-6)

요한 10,7-18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루카 15,3-7(마태 18,12-14)에 나오는 착한 목자의 비유에서 나온 표현이며 그리스도의 칭호이다. 같은 주제가 히브 13,20; 1베드 2,25; 5,4에서도 다루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어깨에 양을 메고 다니시는 착한 목자로 제시된다.

전례에서 부활 후 제4주일인 성소 주일에 착한 목자 주제를 기념한다. 비유는 부활절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의미를 갖는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착한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예언서들과 시편들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토록 자주 계시된 하느님과 당신을 동일시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양 떼를 위해 목숨을 내어 준 목자이시다. 전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연결시킨다. 본기도에서는 당신 교회의 목자이신 승리자 그리스도를 목자로 제시하고, 영성체 후 기도에서는 전능하신 하느님을 우리의 영원한 목자라 부른다. (출처: 전례사전)

종종 양 어깨에 양이 있는 선한 목자의 형상은 로마의 카타콤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표현 중 가장 일반적이며,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관련이 있다. 처음에는 초기 기독교 예술에서 사용된 다른 상징으로도 이해되었다. 약 5세기까지 그 인물은 이때까지 발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통적인 묘사의 모습을 더 자주 취했고, 후광과 풍성한 예복이 더해졌다.

가톨릭 직장인을 위한 쉬운 사회교리

첫걸음을 내디디며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1. 낯설지 않아야 할 ‘사회교리’

‘교리’는 우리 가톨릭교회의 교우들께 익숙하지만, ‘사회교리’라는 용어는 낯섭니다. 설명을 위해, 표준 교리서인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구성을 소개합니다. 제1편의 제목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일미사에서 고백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편은 ‘신비의 거행’입니다. 세례성사, 고해성사, 성체성사 같은 성사들을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4편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주 바치는 주님의 기도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비자 교리 시간이나 첫영성체 교리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이어서, 어쩌면 익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단히 낯섭니다. 그 제목의 평이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교우가 낯설어합니다. 제3편은 제1부 ‘인간의 소명(召命): 성령

안의 삶’ 제1장 ‘인간의 존엄’, 제2장 ‘인류 공동체’, 제2부 ‘십계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이 지면을 통해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이 제3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존엄’에 뿌리를 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들(인권)’을 존중·수호·증진함으로써, 사회(지역, 국가, 세계)의 공동선을 촉진할 책무(責務)가 있음을 가르칩니다.

한 가지 예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세계적 현안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또 러시아가 병력을 총원하기 위해 남성들을 징집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 동원령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는 보도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군인 생활로 조국에 대한 봉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위한 역군이다. 이 임무를 올바로 수행한다면, 그들은 참으로 국가의 공동선과 평화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 사용을 거부하며 다른 방법으로 인간 공동체에 봉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공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앞의 인용은 ‘군복무’에 관한 내용이며, 뒤의 인용은 이른바 ‘대체복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 경험으로, ‘이 두 내용이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있을까요?’라는 물음에 대부분 교우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하거나, 답하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앞의 두 내용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2310항과 2311항을 그대로 인용한 ‘교리’입니다. 다른 예들은 정말 많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정치, 문화, 경제, 과학 분야의 여러 현안, 곧 사회 현안들에 관해 교회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3편은 사실상 ‘사회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교리’라는 용어는 1941년 교황 비오 12세의 라디오 메시지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사회교리’는 “교황과 그와 일치하는 주교들의 교도권(敎導權)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발전된 교리로서, 사회에 관련된 현안들에 관한 교리적 ‘집적(集積)’”(「간추린 사회교리」, 87항)을 말합니다. 주목해야 할 구절은 ‘교리적 집적’과 ‘사회에 관련된 현안들’입니다. 교리적 ‘집적’은 지속(연속)성과 새로운 응답(쇄신)을 통한 교리적 발전을, ‘사회에 관련된 현안들’은 언제나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함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문헌들은 시대적으로 인류가 직면한 ‘사회 현안들’에 관한 교리의 ‘집적’인 ‘사회교리’입니다. 최근의 예들만 소개하면, 베네딕토 16세의 「진리 안의 사랑」은 이른바 ‘2007-08년 세계 금융 위기’라는 현안을 성찰한 사회교리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찬미 받으소서」는 ‘생태 위기’라는 지구 차원의 현안을, 「모든 형제」는 ‘세계평화’와 ‘세계 공동체 건설’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성찰한 사회교리들입니다.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1891, 자본과 노동에 관한 회칙),
비오 11세의 「사십주년」(1931, 「새로운 사태」 반포 40주년, 사회 질서의 재건에 관한 회칙),
비오 12세의 성탄 라디오 담화와 사회 문제에 관한 중요한 발언들,
요한 23세의 「어머니와 스승」(1961, 그리스도교와 사회 진보에 관한 회칙)과 「지상의 평화」(1963, 진리 안에서 이루는 보편적 평화에 관한 회칙),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의 「기쁨과 희망」(1965,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과 「인간 존엄성」(1965,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바오로 6세의 「민족들의 발전」(1967, 민족들의 발전에 관한 회칙)과 「팔십주년」(1971, 「새로운 사태」반포 80주년 사도적 교서),

주교 시노드의 「세계 정의」(1971, 정의와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해방에 관한 문헌),

요한 바오로 2세의 「노동하는 인간」(1981, 「새로운 사태」반포 90주년, 인간 노동에 관한 회칙)과 「사회적 관심」(1987, 「민족들의 발전」반포 20주년 회칙)과 「백주년」(1991, 「새로운 사태」반포 100주년 회칙),

베네딕토 16세의 「진리 안의 사랑」(2009,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루는 온전한 인간 발전에 관한 회칙), 프란치스코의 「찬미 받으소서」(2015, 우리의 공동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회칙)과 「모든 형제들」(2020, 형제애(관계)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회칙).

여기에 더하여 교황들이 1967년부터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 「평화의 날 담화」도 중요한 사회교리 문헌에 속합니다>(*이 문헌들과 담화들은 교황청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II. 교회의 사명인 ‘복음화’와 ‘사회교리’

우리가 사회교리를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이 땅의 교회 사명’에 관한 다음의 내용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첫째, 창조와 해방의 하느님께서 ‘전인(全人)’으로서 한 인간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계획을 지

니셨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생과 죽음과 부활로써 그 사랑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자이신 성령의 은총을 받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처럼 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넷째, 그 부르심은 하느님 자녀들의 능동적인 응답과 수용을 요구하며, 이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에서 이웃과 형제 관계를 맺고 그에 대한 책임, 곧 형제애에의 헌신(투신)으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곧 창조 세계와 현세 사물(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사(事)라 한다면, 과학과 과학 기술은 물(物)이라 할 수 있습니다)은, 하느님 사랑의 구원 계획에 따라, 고유의 질서와 자율성을 지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 존엄과 인간 공동체(공동선)에 이바지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사회생활’은 반드시 ‘사람’과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그 ‘수익’은 어디까지나 수단들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인 ‘복음화’: 첫째, 교회는, 인류 한 가운데서 또 세상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면서 하느님의 새 백성입니다. 이 교회는 하느님과 깊은 결합의, 또 전 인류 일치의 표지이며 도구입니다. 교회는 하느님 사랑의 성사입니다. 둘째, 사명(使命)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또는 ‘맡겨진 임무’를 말합니다. 셋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나라’라고 부르시며 성취하신 그 구원을 모든 백성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라는 명(命)을 받았습니다(마태 28,19-20 참조, 「간추린 사회교리」, 49항 참조). 교회의 이 사명을 우리는 ‘복음화’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1코린 6,20; 1베드 1,18-19 참조) 얻으신 구원은, 의인들이 죽은 후 그를 기다리고 있는 새 생명을 통해서 성취되지만, 경제와 노동,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사회와 정치, 국제 공동체, 문화들 사이와 민족들 사이의 관계들이라는 실재들을 통하여 이 세상 안에도 스며들어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1항). 그 때문에 세상과 역사 속에서 교회는 물론 “인류도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느님 계획에 협력하라는 부르심을 듣습니다”(「간추린 사회교리」, 60항).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65)의 ‘현대 세계 안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은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고 사회는 쇠신되어야 한다”(3항)고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인 그 복음화는 ‘참된 인간화’와 ‘참된 사회화’를 겨냥하며, 여기서 ‘참된 사회화’를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의 권고 「복음의 기쁨」 제4장에서 ‘복음화의 사회 차원’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회교리는 ‘복음화의 사회 차원’을 실현하려는 성찰의 원리, 판단의 기준, 행동의 지침들입니다.

다음 호부터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회 현안’을 예로 들면서 ‘사회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

* 필자가 의정부 교구 주보에 연재하고 있는 사회교리 관련 글을 다듬거나 발췌한 내용입니다.

순교자를 통해 살펴보는 한국교회사

배관겸 프란치스코, 인언민 마르티노, 이보현 프란치스코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배관겸(裵--, 프란치스코, 1740-1800)

배관겸 프란치스코는 당진(唐津) 고을, 진목 [長項] 출신입니다. 마음이 선하고 확고한 그는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온 초기부터 교리를 배웠고, 1791년 진산사건의 여파로 체포되었으나 배교하고 석방된 적이 있습니다. 석방된 후 자신의 배교를 뉘우치고 교우들과 함께 면천 양제(楊堤)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경당을 준비하여 주문모 신부를 모시고자 했으나, 밀고자 조화진(趙和鎭)에게 발각되어 1798년 10월 3일(양력 11월 10일)에 체포되었습니다.

홍주로 압송된 그는 천주교 신자와 서적이 있는 곳을 말하라는 문초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몇개월 문초를 받은 후, 마침내 다른 신자들과 함께 청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원야고보 등과 함께 여러 차례 형벌을 받다가, 1799년 12월 13일(1800년 1월 7일) 팔다리가 부러지고 뼈가 드러난 몸으로 옥사하였습니다. 60세의 나이로 순교한 배관겸은 주문모 신부 영입을 위해 여정에 동행했던 배 마티아

의 형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의 아들 배청모(아우구스티노)도 체포되어 청주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의 부친이 순교하자 관헌들의 허락을 얻어 장사를 지낸 뒤에 몰래 도망하였습니다. 그 후 공주, 면천 등지로 다니며 살다가 1825년 다시 체포되어 해미 진영에 투옥되었다가 석방된 후 사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순교가 배교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인언민(印彦敏, 마르티노, 1737-1800)

인언민 마르티노는 지방의 양반 출신이었고, 덕산의 주래 고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유순하면서도 한편으로 강인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학문을 제법 익혔기 때문에 황사영 알렉시오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그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웠습니다. 신주를 모시지 말라는 지침을 듣고는 즉시 그의 신주들을 향아리 안에 넣어 물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가서 주문모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그의 장남 요셉을 주 신부에게

맡겼습니다. 둘째 아들을 천주교인과 혼인시키고 공주(公州)로 이주하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외교인 친척들은 인언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 마르티노는 친척들에게 숨김 없이 자신의 뜻을 표명하였고, 그들이 천주교를 실천하지는 않았지만, 천주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공주 재판소로 들어갔고, 다시 청주로 보내져 가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의 결심을 꺾지 못하자 그의 고향인 해미로 이송되었습니다. 20여명의 포졸들에게 매질을 명령하면서, 관장은 “배교하라. 그러면 너는 바로 그 순간 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인언민의 대답은 매우 힘있고 분명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나의 하느님을 위해 바치는 것은 진심입니다.” 옥졸 중 하나가 커다란 돌을 들고 여러 차례 인 마르티노의 가슴 위를 내리쳤습니다. 아래턱이 떨어져 나가고 가슴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63세의 나이로 1799년 음력 12월 15일(양력 1800년 1월 9일) 해미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보현 프란치스코 역시 매질로 순교하였습니다.

이보현(李步玄, 프란치스코, 1773-1800)

프란치스코는 덕산 고을 황모실의 한 양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곧고 고집스러워 그의 의지를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24세에 황심 토마스로부터 천주교 교리를 배운 후, 그의 성실함에 걸맞게 한결같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고행과 금욕을 실천하며 산속에 들어가 나물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느님을 섬기고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동정으로 살든지 순교로써 하느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도이다.”

박해의 조짐이 보이자 프란치스코는 두려워하기 보다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도 천주교를 가르치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권유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다가올 고난을 예상했는지 잔치를 베풀

을 준비했는데, 마침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보현은 자신이 덕산 출신이며 천주교인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간단한 심문과 매질을 받은 후 고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해미의 관장은 당시 두 관아, 즉 해미 현감과 충청도 좌영장(左營將)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해미 관장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이보현 프란치스코의 신앙의 깊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관장: 너는 어떤 이유로 네 부모와 네 조상의 묘를 저버리고 500리 떨어진 다른 고을에 정착하러 갔느냐? 너는 왜 가증스러운 교리를 따르면서 임금이 금하는 것을 행하느냐?

프란치스코: 왜 당신은 우리 종교를 그와 같이 규정합니까? 임금과 수령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태초에 사람들에게 존재를 부여한 것은 하느님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크신 아버지이고 대왕이신 자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관장: 너는 어떻게 외국 교리를 따를 수 있느냐? 만약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네게 가치 있는 임금과 관장들이 그것을 실천할 것인데, 너 같은 자는 근본을 모르는 대역죄인이다. (고문하며) 숨기지 말고 모두를 고발하라.

프란치스코: 도처에 스승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고발하면 당신들은 그들을 나처럼 다룰 것이니 내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무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신문과정에서 이보현 프란치스코는 고문을 견디어 냈고, 다시 기도하면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이야기하며 위로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문에서 관장은 다시 “모두를 고발하라. 그리고 하느님을 부인하라”하고 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신하가 임금을 부인한다면 그에게 처벌을 가합니까 상을 줍니까? 임금으로부터 녹을 받는 당신이니 나를 법에 따라 다루어 주십시오”하고 대답하였다. 관장은 계속해서 고문을 가하면서 “그는 사람이 아니다. ... 참으로 이상한 자이다”라고 하면서 결안(사형선고문)에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받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즐겁게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매를 맞아 죽게 됩니다. 27세의 나이로 인언민 마르티노와 함께 장사(杖死)하였습니다. 여러날이 지난 후 사람들이 그의 유해를 거두었는데, 그는 아주 눈부신 모습에 미소짓

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외교인 2-3명이 이를 보고 입교하였습니다. 이처럼 프란치스코의 증언은 순교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천주에 대한 확실한 신앙, 이웃을 고발하지 않고 고문을 견디어 내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블뤼 주교가 정리해 놓은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는 내포 지역의 이 초기 순교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이 해의 많은 순교자들의 상세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으나, 이단원(이존창)에 의해서 복음화가 된 내포 지방이 얼마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지 우리는 주목할 것이다. 원시장 베드로(4)와 원시보 야고보(11), 이도기 바오로(8), 박취득 라우렌시오(10), 정산필 베드로(12), 방 프란치스코(9), 배관겸 프란치스코(13), 이보현 프란치스

코(15), 그리고 인언민 마르티노(14) 등은 모두 내포 지방의 서로 다른 마을 사람들이었다. (괄호 속의 번호는 124위 복자의 번호순서를 가리킨다) 초창기부터 이토록 풍요로운 옥토가 꾸준하게 감탄할만한 결실을 내고, 나라에서 천주교의 정통적인 땅으로 남아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1801년 박해 이전의 순교자들이 내포 지역에 많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미 지역적 박해가 부분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랍고 단호한 증언들을 통해서 신앙에 확신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세상 만물의 창조주인 천주는 큰 임금, 큰 아버지(大君大父)요, 생명의 근원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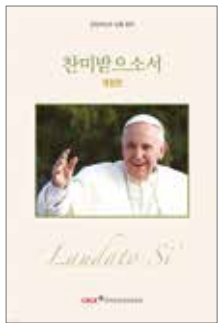
짙막한 신앙행적 호칭을 통해 이들 순교복자들을 기억합니다.

사형전날 최후밥상 감사하며 받아먹은 복자 방 프란치스코,
팔일간을 물뭍먹고 새끼줄로 목이줄린 복자 박취득 라우렌시오,
주문모신부 교리설명 들은후에 첩을내친 복자 원시보 야고보,
급한성격 세례후에 온순하게 바꾸어낸 복자 정산필 베드로,
주문모신부 모시고자 강당을 만들어 놓은 복자 배관겸 프란치스코,
위주치명 신앙증언 진심으로 실토해낸 복자 인언민 마르티노,
신앙으로 난폭성격 고쳐내고 목숨바친 복자 이보현 프란치스코,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여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인간 중심주의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생태 위기의 내적 근원으로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119항)를 지적합니다. 세상을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프란치스코의 교황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뿌리 깊이 스며있는 인간 중심주의의 문제점에 주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대에는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가 있어 왔고,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여 공동의 이해와 사회적 결속 강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인간 중심주의가 불러온 한계에 새롭게 주의를 기울일 때가 되었습니다.”(116항). 교황님의 이 제안을 따라 이번 호에서 인간 중심주의에 관하여 함께 성찰해보겠습니다.

기계론적 세계관

오늘날 인간 중심주의의 배경에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근대 자연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주장한 이 세계관은 모든 현상을 기계적 인과 관계로 봅니다. 자연을 생명이 없는 물질적 재료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 관점은 자연을 인간이 활용하는 대상, 즉 인간의 목적과 계획을 위한 물질계로 축소하지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인간과 자연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이분법적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인간은 인격을 가진 주체인 반면, 자연은 인간에 의해 객관적으로 관찰되고 실험되어야 할 대상 혹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자리와 재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관점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없애며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도록 이론적 바탕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자연 자체의 주체성을 부인하고 철저히 대상화함으로써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제공한 셈입니다.

인간 중심주의

자연이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기계적 구조에 불과하다는 세계관은 “다른 피조물을 고려하지 않는 자의적인 인간 중심주의”(68항)로 발전하였습니다.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 자신을 지구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자연의 주인이나 소유자로 봅니다. 인간은 자연의 다른 존재들 ‘곁에서’ 혹은 그 존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하느님의 창조를 통해서 있게 된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자연을 인간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곧 자연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를 지니지 않으며,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한에서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인간이 자신을 중심으로 삼으면 당장의 유익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게 되어 나머지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122항). 만물의 중심과 척도를 인간으

로 보는 이러한 관점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소유자와 소유물의 관계로 전락하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는 정당화되었습니다.

인간 중심적 문화

문화를 이루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문화를 이루는 가장 중심부에는 세계관이 있고, 다음으로는 그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가치 체계가 있으며, 가장 바깥쪽에는 행동 양식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회칙의 표현처럼,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는 그릇된 생활 양식을 낳습니다”(122항). 왜곡된 인간 중심주의에 익숙해진 인간은 “자연에 아무런 전제 없이 있는 그대로 물건을 만들려는 자리와 재료로 여기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하든 관심이 없습니다”(115항). 이러한 인간 중심적 문화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기후 재앙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우리는 ‘좀 더 많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라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만 집중합니다.

인류세(Anthropocene)

인간 중심적 세계관과 문화 속에서 심화된 생태 위기 앞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지질학적으로 신생대 홍적세를 살고 있지요. 그런데 인간으로 인해 지구 환경이 너무나 급속하게 변했기 때문에 ‘인류가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질시대’라는 의미에서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시대 명칭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새로운 개념은 네덜란드의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첸(Paul Crutzen)이 2000년에 지질 및 생태에 끼치는 인류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의 지

질시대를 ‘인류세’로 부르자고 주장한 이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자초한 생태 환경 변화가 지질학적으로 한 세대를 구분할 정도로 이르렀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주도하는 지질 흔적 앞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인류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인간학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특별한 가치까지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문제라고 해서 그 인간을 너무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면, “우리의 전반적 책임 의식은 약화될 것”(118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칙은 인간을 단순히 여러 생물종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생물 중심주의’가 인간 중심주의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지성, 의지, 자유, 책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이 세상을 책임 있게 대할 것을 바랄 수 없습니다”(118항).

네 그렇습니다. ‘올바른 인간학’을 위해서는 인간성의 무시나 경시가 아니라 인간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모든 근본적인 인간관계를 치유하지 않고는 우리가 자연과 환경과 맺은 관계를 감히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119항). 결국 우리가 인간 생태를 소중히 하고 지구 공동체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연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포르토 마우리치오의 성 레오나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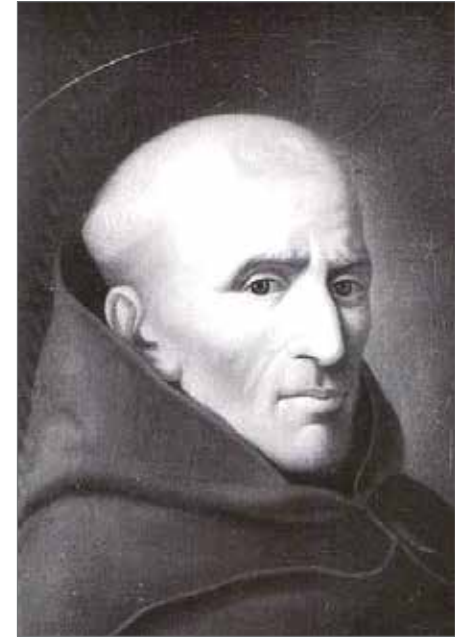
St. Leonard (축일: 11월 26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 작은형제회

우리의 뇌리 속에 익숙한 남자 이름이 바로 ‘레오나르도’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르는, 예술과 의술의 거장이었던 빈치(Vinci)의 ‘레오나르도’,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남자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은 왠지 멋있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성인들 가운데, 그리고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인들 가운데 이 멋진 이름을 간직하신 분이 있어 이번 호에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이태리 북서부 리구리아(Liguria) 지방의 작은 도시 포르토 마우리시오(Porto Maurizio) 출신의 성 레오나르도 신부님입니다. 이분은 프란치스코 사제이셨고,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가 바치고 있는 ‘십자가의 길(Via Crucis)’을 널리 전파하는데 1등 공신이셨습니다. 본디 십자가의 길은 예루살렘에 있는 7km의 십자가의 길을 순례자들이 걸으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을 레오나르도 성인을 필두로, 1686년 교황 인노첸시오 11세가 프란치스코회 모든 성당에 십자가의 길을 설립하도록 허락하셨고, 1731년 교황 클레멘스 12세는 수도회 이외 모든 곳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설립하도록 확대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기도신심의 전파에 제일 으뜸이셨던 이 성인을 소개해 드리는 동시에, 이 레오나르도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영적 섭리도 아울러 밝혀보고자 합니다.

이 이름은 본래 게르만어 어원을 갖고 있는 고대 프랑스어 이름입니다. 그



래서 레오나르드Leonard라고 하는데, 이는 두 부분의 합성어입니다. 우선, 레온Leon은 ‘사자Lion’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략된 것이 바로 ‘h’인데 이것을 되살리면 ‘hard’라는 게르만어가 나타나고, 이것의 의미는 ‘척박한 환경에 강인한(hardy), 용감한(brave), 강력한(strong)’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중세에는 흔치 않은 이름이었으나, 19세기에 들어서 매우 인기 있는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변형으로는 레너드(Lennard)이며, 약칭으로 렌(Le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종합하면, 어원적으로는 ‘어떤 척박한 환경에도 강인하고, 용감하고, 강력한 수사자와 같은 남자’를 두고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사자가 게으르고 무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보다 체중이 4배 이상으로 나가는 성체 물소나 몸집이 더 큰 하마를 기습 공격해서 사냥할 정도로 정해진 목표 달성에는 모든 것을 쏟아내는 본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밀림의 왕으로서 보호 본능도 적극적으로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영성적으로 해석하면,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을 가진 형제님들은 주님과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어떤 척박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불굴의 의지와 용맹

으로 수사자처럼 목표를 이뤄내는 영적 투쟁의 승리자가 되라는 섭리를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도 오늘 만나고 있는 성 레오나르도 사제께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이태리 전역에 퍼트리신 점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현존하는, 로마 콜로세움 바로 곁의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라치오 관구 소속)에서 머무셨고, 1703년에 사제 서품을 받으셨습니다. 성모님의 은혜로 결핵이 치유되기도 하였고, 회개와 관상, 성체신심과 설교에 있어서는 따라올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던 모든 청중들이 자주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고, 그분의 불같은 설교 말씀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었기에, 레오나르도 성인께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믿음을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도 으뜸이셨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설교와 회개에 대한 열정이 컸으면,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께서도 레오나르도 성인을 두고 ‘우리 시대에 누구보다 더욱더 큰 선교사’라고 칭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 기도를 널리 전파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전역에 500여개 이상의 본당에 십자가의 길이 설치되었습니다.

매 25년마다 열리는 희년이 1750년에 있었을 때에, 레오나르도 성인을 가장 높이 평가하시던 교황 베네딕토 14세께서 콜로세움에서 초세기 박해받았던 그리스도교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전통은 매년 성 금요일이 되면 교황님들께서 오후 3시 십자가의 길을 콜로세움에서 주관하시는 것도 바로 성 레오나르도 사제 덕분입니다. 전통에 충실하셨으면서도 또한 교회가 끊임없이 쇠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주장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끊임없이 입술과 마음으로 “저의 예수님, 제게 자비를”이라고 기도하였으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한 신심에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십자가의 길을 통해 많은 이들을 참된 회개로 이끈 프란치스코 성인 사제요 순회설교자이셨습니다. 열정이 식었고, 절망은 커진 오늘 이 시점에도 강인한 사자처럼, 요한 세례자처럼 우리에게 뜨겁게 불같이 설교하시는 성인의 금언(金言)을 새겨 봅시다. 신앙은 취미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혼돈과 불안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

“세상 사람들의 슬픔에서 떠나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는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난을 명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할 수 없는 삶의 역경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포르토 마우리치오의 성 레오나르도 사제-

유서(遺書)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올해 환갑을 맞이한 김요셉은 40대 중반에 얼떨결에 본당 남성 구역장을 맡게 되었다. 그 후 본당 신부님의 권유로 남자 교우만을 위한 “가장 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1박 2일간의 수도원 피정 중에는 예상치 못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여 “유서”를 쓰는 것이었다.

얼마 전 혼자되신 어머니, 결혼하여 분가한 누님, 남겨질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쓰고, 가장 많은 지면을 아내인 데레사에게 할애하게 되었다. 자신이 쓴 유서를 앞에 나와 발표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유서 작성 후 15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피정 노트를 꺼내보게 되었는데 지금 읽어봐도 또 눈물이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Question

“내 자신의 유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지 이야기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시편 39장 5절(성경)과 전도서 8장 8절(공동번역)을 읽어주십시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의 “나의 죽음의 때”를 이야기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죽음은 인간의 지상 순례의 끝이며, 지상 생활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 실현하고 자신의 궁극적 운명을 결정하라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자비의 시간의 끝이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친 다음에” 인간은 또 다른 지상 생활을 위해 돌아오지 못한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다”(히브 9,27). 죽음 뒤에 ‘환생’이란 없다.

교회는 우리가 죽을 때를 위하여 준비하도록 권유하며(“졸연히 예비 없이 죽음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하소서.”: 옛 성인 호칭 기도), 천주의 성모 마리아에게 “저희 죽을 때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기를 청하고(성모송), 죽음을 앞둔 이의 수호자인 요셉 성인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권고한다.

네 모든 행동과 네 모든 생각에서 네가 오늘

죽게 될 것처럼 너는 행동해야 할 것이다. 네 양심이 평안하면, 죽음을 몹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는 죄를 피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오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내일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13-1014항]

5. 실천계획을 세운다.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7. 참조 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 한상봉

날마다 오늘 하루처럼 당신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녁이면 어김없이 산그늘을 덮쳐오고 아침보다 찬란한 황혼이 고요히 지상에 내려앉듯이 저희가 당신 안에서 착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우소서.

미리 알 수 없는 그 순간을 위해 날마다 오늘 하루처럼 어여빠 살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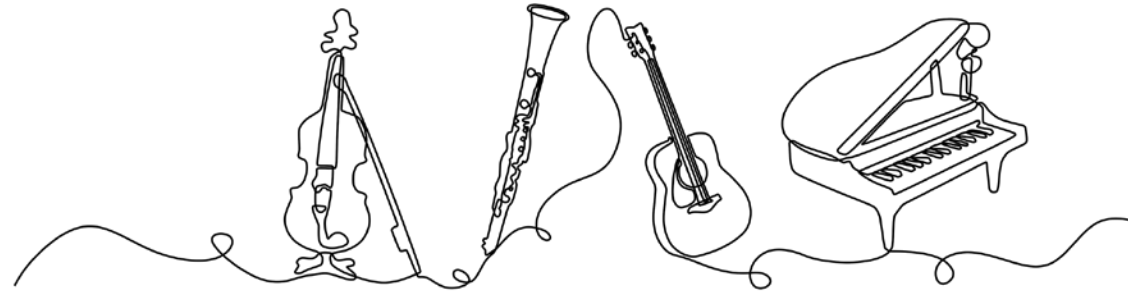
그날이 오면 신발마저 겸손하게 벗어두고 하늘을 넘어 당신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살피시고 이끌어 주소서.

당신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으리다.

고전 음악을 듣다

바그너 - ‘지그프리트의 죽음’과 ‘니벨룽의 반지’

조병선 바오로_청주대 법학과 교수



어느 시대에나 반항아는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기존의 음악적 전통에 반기를 든 여러 음악가들 중에서도 특히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는 단연 돋보인다. 그 벗어나는 정도가 가히 혁명적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음악의 전개에 필수적인 종지의 개념을 ‘무한 선율’로 흐트러뜨리는가 하면, 화성학의 법칙을 일명 ‘트리스탄 코드’로 애매하고 흐릿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독일 작센의 라이프치히에서 9번째 자녀로 태어난 바그너는 탄생 후 6개월만에 아버지를 여의고, 바로 다음 해 어머니가 재혼하여 연극배우였던 새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예술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바그너의 음악 경력이 극장에서 시작하여 극장에서 끝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과거 요한 세바스찬 바흐도 봉직했던 성 토마스 교회와 함께 설립된 전통있는 토마스 학교를 거쳐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성 토마스 합창단의 합창지휘자의 제자가 되었고,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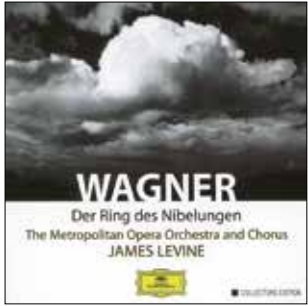
연히 후일 바그너의 극장 경력은 뷔르츠부르크의 합창감독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마그데부르크 극장의 음악감독이 되어 거기서 21세의 나이에 생애 최초로 오페라 ‘연애 금지(Liebesverbot)’(1834)를 공연하였는데 실패로 끝났다. 벨리니, 도니제티, 롯시니 등 이탈리아 오페라의 영향이 엿보이는데,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기초로 각색하여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 ‘사랑의 자유’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바그너는 이 작품 이후부터는 각본을 스스로 썼다. 원래 마그데부르크는 무능한 극장 감독에다가 전속악단도 없어 늘 다른 악단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여 바그너는 음악감독직을 거절하려고 하였으나 연극배우 민나에 반하여 계약체결을 하였고, 열정적으로 구애를 하여 끝내는 민나와 결혼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제 생계를 책임진 바그너는 멀리 과거 칸트가 거주했던 쾨니히스베르크(현재는 러시아 칼리닌그라드)를 거쳐 더 북쪽 라트비아의 리가까지 음악감독직을 찾아 이주하지만 늘 빛에 허덕였고, 결혼 3년만

에 리가에서 채권자를 피해 배를 타고 야반도주로 런던을 거쳐 파리에 도착했다.

이런 궁핍한 경험은 여러 가지로 바그너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야반도주로 배를 타고 풍랑을 맞아 난파당할 뻔했던 경험이 후에 금의환향하여 작센 궁정 지휘자로서 발표한 ‘방황하는 네덜란드인’(1843)의 결막 오페라가 나오게 되었지만, 한편 가난한 파리에서의 생활은 파리 오페라계를 쥐락펴락하는 마이어베어를 비롯한 유태인 음악가에 대한 반감을 키워주게 되었다. 바그너의 창작열이 불타올라 ‘탄호이저’(1845)와 ‘로엔그린’(1850)가 나오던 시기에 바그너는 스스로 혁명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1848년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공화정에 대한 소신을 밝혀 이미 작센 공국 상류사회의 구설수에 올랐던 바그너는, 결국 1849년 드레스덴 봉기에 직접 참여하여 그에 대한 체포장이 발부되기에 이르렀다. 수배 전단까지 뿌려지자 바그너는 변장을 하고 생애 두번째로 야반도주를 하였다. 이제 다시 궁

핍한 12년간의 긴 망명생활이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바그너의 작품에 호감을 가진 후원자 - 스위스 재벌 베젠동크와 바이에른 공국 루드비히 2세 - 의 큰 도움을 받는 등, 전번 도주와는 달리 운도 조금은 따랐다. 바그너에게 공식적으로 추방령이 해제된 것은 1864년(51세)이었다.

첫 오페라 이후 대분을 직접 써내려간 극작가이기도 하였던 바그너는 자신의 공화정에 대한 소신을 밝힌 논문을 발표하였던 1848년, 독일 영웅의 전설을 기초로 ‘지그프리트의 죽음’의 서사시를 써내려갔다. 바그너의 대작 ‘니벨룽의 반지 4부작’(일명 링 사이클)의 최초의 단서였다. 지그프리트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의미하는 ‘신들의 세계’에서 파생된 인간 영웅이었지만, 기존 질서의 전복을 꾀하는 새로운 세력 ‘난장이 니벨룽족’ 사이의 암투 속에서 니벨룽에서 파생된 인간 ‘하겐’의 음모로 죽음을 맞이한다. ‘악의 축’에 대항시키고 악의 세력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것을



Wagner: Der Ring des Nibelungen
Metropolitan Opera & Chorus, James Levine

Release Date: 18th Oct 2002
Catalogue No: 4716782
Label: DG
Series: Collectors Edition
Length: 15 hours 18 minutes

Grammy Awards Best Opera Recording
32nd~34th Awards (1989~1991)

막으려는 계획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두려움을 모르는 자유 인간 지그프리트는, 반지를 움켜진 용을 죽이고 세상의 권력을 가져다 주는 반지를 차지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세력을 모을 줄도 모르고, 권력의지도 없이 순진하기만 하다. 당시 작센 왕정을 타파하고 공화국을 세우려는 혁명가였던 바그너에게, 친구 세력의 암투 속에 좌충우돌하다가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던 지그프리트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바그너는 이 해답을 찾아 무려 26년간을 공을 들였다. 1848년 35세에 시작하여 1874년 61세에 완성한 ‘링 사이클’에 그 해답이 있다. 그리스 연극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과시라도 하듯 ‘무대 축제극(Bühnenfestspiel)’의 부제를 붙인 ‘니벨룽의 반지’는 전야(Vorabend)와 1일, 2일, 3일로 구성된 4부작으로 연이어 공연하도록 되어있다. 요즘은 우리가 16부작의 TV 드라마를 보듯이, 연이어 4부작의 ‘음악극(마

Musikdrama)’를 ‘보는’ 것이다. 음악은 마치 영화음악처럼 그 드라마를 적절하게 뒷받침해주는 ‘설명’의 하나일 뿐이다. 바그너는 그래서 이 작품에 ‘오페라’라는 용어 대신 ‘음악극(Musikdrama)’라는 장르 이름을 붙였다. 줄여서 ‘악극’이라고도 하는데, 괴테나 실러 등 뛰어난 극작가를 배출했던 독일은 연극을 중시하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베버의 ‘마탄의 사수’에서 연극 부분을 강조하는 오페라의 개혁이 있었다. 바그너를 음악극의 창시자라고도 하지만, 가장 극한적으로 연극 부분을 강조하는 개혁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매 장면(시퀀스)마다 그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보통 음악적으로 ‘유도동기(Leitmotiv)’로 지칭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유도동기’의 음악은 현재 모든 할리우드 영화의 시작이었다. 4부작이기 때문에 4일간 연속해서 무려 17시간에 달하는 이 음악극을 보고 들어야 한다. 독일

Wagner: Tannhäuser
Jane Eagle, Waltraud Meier, Peter Seiffert, Pené Pape, Thomas Hampson
Chor der Deutschen Staatsoper Berlin
Staatskapelle Berlin
Daniel Barenboim

Release Date: 2nd Apr 2002
Catalogue No: 8573880642
Label: Teldec
Series: The Opera Series
Length: 3 hours 14 minutes

Grammy Awards
45th Awards (2002)
Best Opera Recording



에서조차 자신들의 모국어로 불려짐에도 불구하고 4일간 17시간을 들으려면 바늘을 가져가라는 - 졸지 않기 위해서 - 농담이 있을 정도다. 바그너도 이를 모를리 없다. 그래서 바그너는 ‘총체예술(Gesamtkunstwerk)’을 강조하였다. 시, 미술, 연극, 음악, 무용 등 모든 예술장르가 하나로 맞물려 합쳐진 예술을 의미한다. 우리가 엄청난 자금을 들인 블록버스터 영화에 매료되듯이, ‘링 사이클’은 시각적인 무대예술 또한 뛰어나야 한다. 실제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서 무대에 진짜 말을 등장시켰다가 말이 똥을 싸는 바람에 무대를 망쳤던 해프닝도 있을 정도였다. 음악도 과거 60-80명 관현악단 수준에서 120명이 넘는 대규모 관현악단이 필요하므로 오케스트라 피트가 이를 수용할만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극장에서는 ‘링 사이클’을 올리기도 어렵다. 이런 대규모의 오케스트라 소리를 뚫고 나올 성량을 가져야 하는 ‘바그너 가수’는 더욱이

장시간 소리를 질러야(?) 하므로, 체력적으로도 마치 스포츠선수같은 체격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어렵게 ‘링 사이클’을 현재도 무대에 올리고, 17시간 졸음(?)을 참아가며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험을 무릅쓴 산악인의 말대로 ‘산이 저기에 있기 때문’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 사이클’은 정말 - 부지휘자 시절 말러가 바그너를 지휘할 수 없으면 극장을 옮길 정도로 - 우리를 사로잡는다. 단, 나름 재미있게 보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먼저 ‘대하 드라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 배경리의 ‘토지’처럼 -, 몇 대에 걸친 등장인물들의 구성과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바그너가 ‘링 사이클’의 대서사시를 시작한 계기였던 ‘지그프리트의 죽음’은 무척 중요하다. 이 허망한 죽음, 마치 실패로만 끝날 것 같았던 죽음을 보완하고 완성시키는 인



Wagner: Der fliegende Holländer
 John Lundgren (Dutchman), Asmik Grigorian (Senta), Georg Zeppenfeld (Daland), Eric Cutler (Erik), Marina Prudenskaya (Mary)
 Bayreuth Festspiel, Oksana Lyniv, Dmitri Tcherniakov

Release Date: 8th Jul 2022
 Catalogue No: 50736174
 Label: DG

Gramophone Magazine
 September 2022
 Blu-ray of the Month



Wagner: Lohengrin
 Siegfried Jerusalem (Lohengrin), Cheryl Studer (Elsa), Waltraud Meier (Ortrud), Hartmut Welker (Telramund), Kurt Moll (King Heinrich)
 Vienna Philharmonic, Claudio Abbado

Release Date: 8th Nov 1994
 Catalogue No: 4378082
 Label: DG
 Length: 3 hours 30 minutes

물이 있는데, 바로 ‘뵘린힐데’이다. 독일에서는 괴테의 대서사시 ‘파우스트’에 비견되는 작품으로 ‘니벨룽의 반지’를 드는 전문가도 많다. 파우스트의 구원을 이끄는 ‘그레트헨’처럼, ‘뵘린힐데(Brünhilde)’는 불타는 지그프리트의 시신에 뛰어들어 함께 죽으며 반지를 라인강에 되돌려 놓는다. 반지를 쫓아 라인강에 뛰어든 승자 ‘하겐’도 라인딸들에 의해 익사하고, 기득권층의 철옹성 ‘발할’도 함께 불탄다. 이데올로기와 같은 세상의 질서를 세웠던 신들의 세력도 사라지고,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악의 세력도 사라진다. 이제 무주공산으로 남은 지상은 어떻게 될까? 이는 오히려 바그너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그프리트의 죽음’과 ‘뵘린힐데의 대속(代贖)’이 남겨준 유산들 - 자연의 질서, 인간의 자유, 영원한 사랑 등등. 신들의 우두머리 ‘보탄(Wotan)’이 한 인간 여인을 취하여 만든 새

로운 종족 ‘뵘송(Wölsung)족’만이 자유롭다. 각각의 신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자유롭지 않고, 니벨룽족은 절대 권력을 목표로 모든 것을 수단화하고, 오로지 뵘송의 후예 지그프리트만이 자유롭다. 다른 종족, 거인족은 폭력을 수단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였고, ‘나이딩(Neiding)족’은 약탈로 살아가며, 나름 새로운 ‘기비흥(Gibichung)족’도 절대 권력만을 추구하는 ‘니벨룽(Nibelung)족’의 우두머리 ‘알베리히(Alberich)’가 인간 여인을 취하여 얻은 자식 ‘하겐(Hagen)’의 이부(異父)형제가 다스리는 왕국이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알아듣는 자연친화적 인간, 지그프리트는 두려움을 모르고 강력한 거인족을 무찌르고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모험을 이어나간다. 우리의 현주소다. 이제 자유로운 인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1849년 드레스덴 봉기가 좌절되며 ‘지그프리트의 죽음’을 보았던 바그너는 ‘뵘린힐데

의 사랑의 대속’으로 미래를 보았다.

‘링 사이클’의 첫 시작, 전야(前夜) ‘라인의 황금(Das Rheingold)’에서 라인딸들이 알베리히에게 라인황금을 설명하면서, 이 라인황금으로 절대 권력의 반지를 만들 수 있지만 대신에 사랑을 포기해야 한다고 경고할 때 등장하는 영화(?)음악 - 이를 어렵게 ‘유도동기’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사랑의 포기(Liebesverzicht)’의 동기라고 지칭함 - 을 들어보자. 아마 유도동기 중에서도 경고이면서 탄식이기도 하기에 가장 애절한 선율일 것이다. 그만큼 다른 동기들보다도 우리에게 인상적이지만, 바그너의 유도동기들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동기다. 왜냐하면 완전히 상반된 장면, 예를 들면 제1일 ‘발퀴레(Walküre)’에서 ‘지그문트(Siegmund)’와 ‘지글린데(Sieglinde)’의 불타는 사랑 장면이나 제3일 ‘신들의 황혼(Götterdämmerung)’에서 ‘뵘린힐데’의 사

랑의 다짐 장면에도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기해야 할 사랑이나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사랑이나 그 ‘비극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을까? 그 반대로 신들에게 젊음을 가져다 주는 사과를 키워 공급하는 여신 ‘프라이아(Freia)’의 배경음악으로 등장하는 단순한 ‘사랑의 동기’는 그 음악이 매우 밝게만 들리지만, 역시 깊은 사랑은 ‘사랑의 포기’ 동기처럼 비장하게 들리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죽음의 존재 인간은 최종적으로는 가까운 사람과 죽음을 통해 이별하기 마련이다. 한국 가톨릭에서 사용되는 용어 ‘선종(善終)’은 우리의 마음에 담은 좋은 말이지만, 자신에게 그 상황이 다가오면 역시나 평범한 신자에게는 당장은 슬픔이 감쌀 것이다. 그러나 선종의 원어 ‘선생복종(善生福終)’의 ‘복(福)’은 사후세계의 믿음이 있기에 가능하듯, 비극 속에서도 ‘사랑의 대속’으로 완성되는 인생을 그려본다. ❶

함께 읽는 세계 문학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해야 한다.” - J.M. 쿣시의 『철의 시대』와 사랑의 윤리

왕은철 미카엘 전북대학교 석좌교수

사랑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를 타자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걸까?

알랭 바디우는 사랑을 “우연한 만남을 영원에 기록하고 고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만남은 우연이지만 그 우연을 자신의 것, 아니 상호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다. 상상만으로도 좋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다.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리비도, 즉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 에너지가 사랑스러운 대상에게 ‘투자’되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한 사랑에 무슨 노력이나 의지, 의도가 필요할까? 나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사랑은 그 대상이 사랑할 만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사랑할 만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사랑할만하고 사랑스

러운 대상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대상을 배제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좀 더 열려 있어야 하고 경계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남아프리카의 1980년대 후반부를 시간적,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J.M. 쿣시의 『철의 시대』는 이러한 사랑의 윤리성을 탐색하는 소설이다. 스토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죽어가는 백인 노인이 남아프리카의 인종적 현실에 눈을 뜨고 자신의 타자에 해당하는 흑인들을 늦었지만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내용이다. 미국에 사는 딸에게 보내는 기다란 편지 형식으로 된 소설은 사랑의 윤리를 지독할 정도로 치열하게 탐색한다. 소설, 아니 편지의 중심에는 처음에는 갈등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막바지에 이르면 일종의 통합에 이르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다. 자연스러운 사랑과 의지적인 사랑의 통합이

라고나 할까. 바로 이것이 이 소설의 핵심이다.

한편에는 자기 딸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이 있다. 여기에는 노력도, 의지도, 이유도 필요하지 않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르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랑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다. 물처럼 흐르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는가. 이런 사랑은 시냇물이다. 비록 딸이 말세적인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지긋지긋하다는 이유로 혼자 사는 자신을 놓아두고 미국으로 가서 살고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걱정할까봐 알리지 않고 자신이 죽은 후에 딸이 읽을 수 있도록 사랑의 감정을 편지에 꼭꼭 새기는 어머니의 마음, 바로 이런 게 사랑이다. 그녀는 그리움의 감정을 이렇게 쏟아낸다.

“너는 나의 삶이다. 나는 삶 자체를 사랑한 것만큼 너를 사랑한다. 아침이면 나는 집에



철의 시대
J.M. 쿣시 저 | 왕은철 옮김 | 문학동네
2019.06.14

서 나와 손가락에 침을 묻히고 들어올려 바람에 댄다. 차가운 바람이 내가 사는 북서쪽에서 불어오면, 나는 냄새를 맡으려고 오랫동안 서서 정신을 집중한다. 아직도 네 귓볼 뒤와 목주름에서 나는 젖내가 수만 마일에 걸친 육지와 바다를 건너 내게 도달했으면 싶어서다.”

얼마나 보고 싶으면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딸의 귓볼과 목주름에 아직도 젖내가 배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젖내를 바람에서 맡으려 하겠는가. 이보다 더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이 또 있을까? 사랑은 그렇게 원초적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남아프리카라는 공간에 사는 것 말고는 공유하는 게 별로 없는 흑인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 낯설고 이질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흑인들에 대한 사랑. 그것은 마음에 머리라는 게 있다면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머리를 어떻게든 이쪽으로 돌려놓아야 가능해지는, 자발적이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은 사랑이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흑인 부랑자 퍼케일, 어렸을 때는 착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반항적이 된 흑인아이 베키, 그리고 베키와 동갑이지만 비교가 안될 정도로 무례하고 도전적이고 음산해서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흑인아이 존, 그리고 흑인 거주지에서 만난 흑인들. 그중에서도 존이라는 아이는 최악이다. 이 소설에서 비중이 큰 인물은 아니지만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존은 열다섯 살로 사랑스럽지도 순진하지도 않은 반항아다. 아이이면서도 아이 같지 않은 어른-아이라고나 할까. 화자도 그런 아이가 좋을 리가 없다. “마음속 어디를 들여다봐도 그를 향한 감정을 조금도 찾을 수가 없다. 자연스럽게 끌리는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는 처음부터 싫은 아이다.

쿣시의 소설은 사랑스러운 딸을 향한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사랑과 사랑스럽지 않은 타자들을 향한 비자발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사랑을 대조시키며 스토리를 끌고 간다. 죽어가는 어머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는 딸에 대한 사랑과 타자에 대한 사랑을 때로는 겹쳐 놓고 때로는 갈등하게 만든다. 그녀는 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해야 한다. ... 나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애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한 나도 모르게 그애를 사랑할 만큼, 그애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또한 내겐 없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사랑해야’ 한다는 거다. 묘한 역설에 묘한 당위성이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처음부터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였을까? 아니다. 그 아이가 사랑스럽지 않은 것은 백인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화자도 그 아이를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녀가 흑인들에게 동정적이고 아파트헤이트 정권으로부터 거리를 뒀다고 해서,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비인간적인 신체적, 심리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남아프리카에서 백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체제 유지에 공모하는 삶이었다. 나름대로 흑인들을 향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동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살아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폭력적 정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존이나 베키 같은 흑인 아이들이 호전적이 된 것은 그래서였다. 그들은 학교를 불신하고 기성세대를 불신하고 백인 모두를 불신했다. 그들의 눈에 학교는 순수한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아파트헤이트 정권이 자기들에게 순응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곳이었다. 학교는 폭력적인 현실을 미화하거나 외면하고 아이들을 체제에 순응하게 만드는, 루이 알튀세르의 말대로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장치”였다. 더욱이 아파트헤이트 정부는 1985년에는 부분적으로, 1986년에는 남아프리카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흑인들을 전보다 더 폭력적이고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이 소설은 1986년에서 1989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 그러자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고 학교 건물에 불을 지르고 백인과 관련한 모든 것을 불신하기 시작했다. 백인들 중에도 소설의 화자처럼 그들에게 온정적이고 따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흑인들은 그들 모두를 적으로 돌렸다. 그러한 온정주의 갖고는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유년시절을 건너뛰고 아이-어른이 되어 체제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도, 남의 목숨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 설령 그것이 같은 흑인이라 해도 타도의 대상이었다. 그들이 아버지뻘인 흑인 퍼케일을 “쓰레기”라고 욕하며 무지막지하게 때린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그들은 점점 더 과격해지고 호전적이 되었다. 그들은 필요하면 총을 들고 전사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철의 시대’가 ‘철의 아이들’을 만든 것이다. 백인인 화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존에게 그녀는 억압적인 체제의 일부였다. 자신의 몸에 손길이 살짝 닿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존재였다. 그를 사랑스럽지도 못하고 사랑할 만하지도 못하게 만든 것은 결국 백인들이었다.

순진해야 할 열다섯 살짜리 아이들을 사랑스

렵지 못하게 만든 것이 백인이라면, 화자는 백인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래서 그녀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 사랑스럽지 못하니까 사랑해야 하는 의무. 그들이 아무리 “저항의 벽”을 세워도 사랑은 그 벽을 넘어 그들을 향해 가야 했다. 그녀에게 사랑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영역이었다.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딸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마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녀는 딸에게 이렇게 고백한다. “그애를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말할 수 있을까? 사랑이란 배고픔과는 다르잖니. 사랑은 결코 충족되거나 잠잠해지지 않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면, 더 사랑하게 된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그애를 더 사랑해야 한다. 내가 그애를 덜 사랑할수록, 어쩌면 나는 너를 덜 사랑하게 된다.”

이상하고 모순적이기까지 한 논리다. 그녀의 표현대로라면 그녀의 말은 “가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는 십자가 논리”다. 내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에 스스로 못박히려고 하는 십자가 논리!

그녀는 상대가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더욱 사랑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아이가 경찰의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그녀가 절망하는 것은 못다한 사랑 때문이다. 죽으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녀는 시계를 돌려서라도 그 아이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고 싶다.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상상 속에서나마 그녀는 엄마가 되어 아이와 함께 있어주고 싶다. 그것은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분명하고 더 사무치게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녀는 이 지점에서 사랑을 새롭게 정의한다. 내 자식이 아니어도 타자를 내 자식처럼 보호하는 모성 본능이 사랑이라고. “모성 본능이란 얼마나 집요하냐! 새끼들을 잃은 암탉이 노란 털과 납작한 주둥이를 알아

차리지 못하고 오리새끼를 받아들여, 모래에 목욕을 하고 벌레를 쫓는 법을 가르치듯이.”

그녀의 사랑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가정부인 플로렌스, 흑인거주지에서 만난 흑인들, 부랑자인 퍼케일 같은 성인들에게까지 확장되는 사랑이다. 그녀는 이 소설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물인 퍼케일에 대해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퍼케일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퍼케일을 신뢰한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 그가 약한 갈대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기댄다.” 그가 누구인가? 신뢰할 수도 없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미덥지도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기대려고 한다. 그녀가 딸에게 쓴 편지—결국 그 편지가 이 소설이다—를 그에게 부쳐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다. (독자가 지금 그 편지, 즉 ‘철의 시대’라는 제목이 붙은 소설을 읽고 있는 것은 그가 화자의 부탁대로 편지를 부쳤기에 가능하다. 신뢰할 수 없는 퍼케일에 대한 신뢰의 결과다. 신뢰는 이런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냥 주는 것이

다. 불가능할 때 믿고, 불가능할 때 사랑하는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서두에 인용한 알랭 바디우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사랑은 “우연한 만남을 영원에 기록하고 고정하는 것이다.” 아쉽게도 그러한 사랑은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 대상만을 상정한다. 그러나 사랑의 신비로움은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할 만하지 않고 낯설고 이질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타자를 사랑하는 데 있다. 적어도 이것이 쿣시의 『철의 시대』가 환기하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종교적인 사랑에 가까워 보인다. 비록 쿣시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혹은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라는 그의 말은 종교적인 믿음에 향한 방향성 내지 가능성을 암시한다. 사랑이나 믿음에는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쿣시의 소설이 환기하는 방향성만 있을지 모르니까! 🍷

1) 여기에서 ‘철의 시대’는 제목 ‘Age of Iron’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일반적으로 ‘철기시대’로 번역된다. 인류는 철기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졌지만, 편리한 만큼이나 더 폭력적이 되었다. 특히 전쟁에서 그러했다. 작가는 여기에서 ‘철의 시대’를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전의 시대와는 비교가 안되게 폭력적이 된 1980년대의 남아프리카 현실, 특히 1986년 6월 12일에 남아프리카 전역에 선포된 계엄령 치하의 현실에 대한 은유.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다시, 예루살렘 - 올리브 산

심연선 소화테레사,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유다광야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산지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평균 해발 800미터 정도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동쪽에 위치한 산이 바로 올리브 산입니다. 유다광야와 예루살렘 산지의 경계 역할을 하는 산이지요. 올리브나무가 많이 재배되던 산이었기에 올리브 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합니다만,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이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구도시 예루살렘과 올리브 산 사이에는 키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르 사바 수도원을 지나 사해까지 이어집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 때에는 이 골짜기를 따라 물길이 생기는데 그리하여 ‘키드론 시내’가 됩니다.

올리브 산에 있는 골목은 매우 좁아서 차로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 정상에서 걸어 내려오거나 키드론 골짜기에서 걸어 올라가거나 해야 합니다. 보통 정상에서 걸어 내려오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오르막길

보다는 내리막길이 더 수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올리브 산 정상까지 가는 버스가 다마스커스 문 앞 정류장에서 출발하고,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곳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차가 막히지 않으면 10분정도 걸립니다.

제가 안내를 할 때, 이곳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거룩한 땅, 성지에서 소매치기 주의를 당부할 때마다 웬지 창피한 생각이 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지갑과 내 마음은 소중한니까요. 이스라엘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갑 단속을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부분을 보고 있는 올리브 산에서 아침 햇살이 비출 때 아름답게 빛나는 구도시 예루살렘을 볼 수 있기에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오전에 이곳을 순례합니다. 기념성당들은 8~9시에 문을 엽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있는 순례자들 대부분이 올리

브 산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40명 되는 성지순례단 무리들이 앞다퉈 기념성당을 방문하는데, 아담한 사이즈로 정평이 나있는 이스라엘 성지 그리고 기념성당에 온 세계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아온 신자들의 무리 무리가 올리브 산의 좁은 골목을 살뜰히 메워줍니다. 사실 올리브 산 성지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에 좀 더 머무르는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이런 이유로 비교적 짧은 시간을 보내야 하며, 이 정신없는 틈을 노려 소매치기 일당들이 몰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된다면 오후 조금 늦은 시간에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단 인적이 드문 곳이기에 해지기 전에 순례를 마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리브 산 정상에는 승천경당이 있습니다. ‘성당’이 아니라 ‘경당’입니다. 살라딘에 의해 1198년에 점령당했고, 지금까지 이슬람 신도들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떠한 전례도 금지되어 있는데, 예수 승천 대축일에는 예절이 허락





올리브 산



승천경당



주님 눈물 성당



주님 눈물 성당

된다고 합니다. 8각형 모양의 벽으로 둘러싸인 담장에 있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면 자그마한 모스크 건물이 보입니다. 그 건물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겨놓으셨다는 발자국이 있는 돌이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을 생각해보면 거룩하고 놀라운 이미지이지만 지구상에서 보는 마지막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 왠지 마음이 아련해지기도 합니다.

승천경당을 나와서 내리막길을 따라 조금 더 이동하면 **주님의 기도문 성당**이 보입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가르멜 수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지의 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헬레나 성녀가 자신의 아들 콘스탄티

누스 대제에게 부탁하여 지은 네 개의 성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님의 기도문 성당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과 승천을 기념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닥에 작게 남아있는 모자이크만이 그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침략과 파괴가 빈번했던 예루살렘과 더불어 이 올리브 산 또한 아픈 전쟁의 상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폐허였던 이곳은 근대에 이르러 프랑스 귀족에게 매입되고 가르멜 수녀원에 봉헌되어 지금 볼 수 있는 수도원 및 성당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세계 민족 각자의 언어로 제작된 주님의 기도문 현판들이 성당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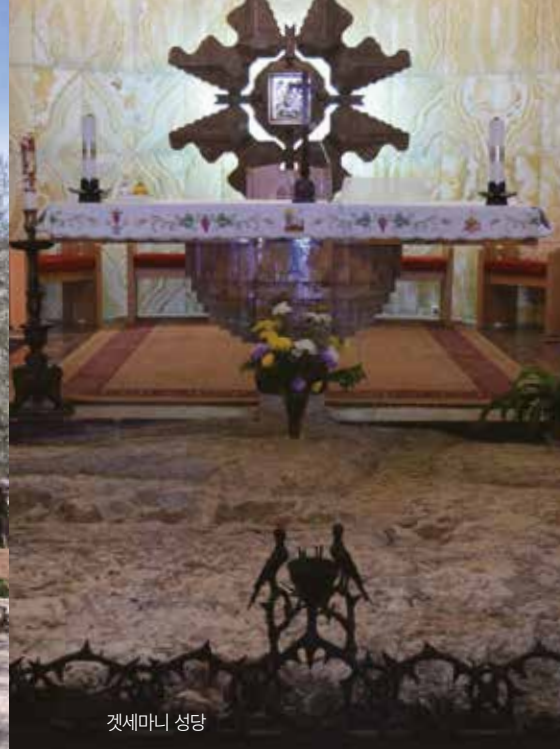
래서 주님의 기도문 성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두 개의 현판이 존재합니다. 두 개라니요? 북한에서 보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개신교 신자가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언어인 한글로 왜 다른 주님의 기도문을 만들었는지, 가르멜 수녀원에서 보존하는 성당의 벽에 왜 개신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그랬지도 모르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실 때 제자들과 함께하시며 말씀을 해주셨던 동굴 위에 세워진 성당입니다. 수녀원 뜰 안쪽으로 그 동굴에 내려가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벽에 베네딕도 수녀원임을 알리는 글자와 굳게 닫힌 작은 철문이 보입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수녀님이 열어주는데 이곳은 베네딕도 수녀회 수도원입니다. 순례자들이 대부분 이곳을 순례하지 않고 바로 눈물성당으로 이동하기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니다. 시간이 넉넉하시면 한번쯤 방문하여 이콘이 아름답게 장식된 성당 안에서 조용히 묵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탈길을 따라 계속 내려가면 **주님의 눈물성당**이 보입니다. 프란치스코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지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곳에



갯세마니 올리브나무



갯세마니 성당



갯세마니 제자들이 잠든 동굴

서 꼭 사진 찍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언하시고 슬픔에 눈물을 흘리신 (루카 19,41) 마음 아픈 장소인데, 그저 아름다운 예루살렘 전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라는 철없는 가이드가 바로 저, 소화데레사입니다만 그래도 꼭 한번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굳게 닫힌 문이 오른쪽으로 또 보이는데, 이곳은 러시아 정교회의 마리아 막달레나 성당입니다. 막달레나 성녀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러시아 황제가 그의 어머니 막달레나에게 봉헌한 성당이라고 합니다. 화,목,토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러시아 이콘을 많이 볼 수 있는 성당입니다. 계속해서 길을 따라 내려가면 올리브 산자락에 갯세마니 성당이 보입니다. 프란치스코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성지인데, 성당 뜰에 올리브나무들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대성당 가장 가까이 있는 아름다리나무가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프란치스코회 수사님이 수령이 2천년이 넘는 나무라고 귀뜸을 해주시는데 저, 소화데레사는 왜 나무 앞에만 가면 의심구름에 사로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나무들은 침묵의 증인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고뇌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을 보았다고 이

별칭이 생겼습니다. 대성당 내부로 들어가면 사순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된 스테인드글라스 창과 밤하늘로 꾸며진 천정이 그 밤을 재현하는 것 같아 가슴에 무언가 울컥 올라옵니다. 제대 앞에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전승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곳에 입을 맞추며 주님의 체취를 아주 조금이나마 느껴보려 합니다. 성당을 나와 더 내려가 보면 오른쪽에 또다시 내리막길이 시작되는데 이곳으로 내려가면 작은 동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는데 그들이 있었던 동굴이라고 합니다. 이 동굴 성당 제대 아래를 보면 졸고 있는 제자

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잡히시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루카 22,46). 갯세마니를 순례할 때마다 늘 잠 많고 게으른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날이 발전해가는 기술로 인해 더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요즘,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갯세마니에 초대하셔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는 말씀도 함께 생각합니다. ☺

정석의 이 도시(3) -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낸 아와지섬

‘아와지를 일구는 여자’ 야마구치 구니코를 만나다

정석 예로니모_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지방 소멸’은 지금 한국과 일본이 함께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이고,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두 나라는 동병상련의 이웃이다. 일본이 먼저 위기를 알아챘다. 인구예측 때문이었다. 1억 3천만 명 가까운 인구를 가진 일본, 그런데 100년 전 일본 인구는 3천 3백만 명 내외였다. 100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1억 가까운 인구가 급격히 늘었고, 같은 양상으로 향후 인구가 급감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었다. 인구가 급격히 줄면 지방부터 소멸될 것이니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의제가 대두되었다. 우리도 다르지 않다.

지난 추석에 고향을 다녀온 사람들은 뚝뚝히 보았을 것이다.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는 시골마을에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사람 없는 마을들을 부지기수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우리보다 조금 먼저 인식하고 국가와 지방이 함께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8월 일본답사 때 도쿠시마현 가미야마(神山)와 함께 꼭 방문하고 싶었던 곳이 효고현 아와지섬(淡路島)이었다.

아와지섬은 오사카와 고베 가까이 위치한 섬으로 6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꽤 큰 섬이다. 신선한 농산물과 해산물이 풍부해 오랫동안 번창해 왔지만, 젊은이들이 떠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중병을 앓고 있다. 현재 인구는 14만 명 내외.

종합대학이 없으니 젊은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와지섬을 떠나고, 공부를 마쳐도 취업 때문에 섬에 돌아오지 않는다. 섬을 떠난 젊은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결국 ‘일자리’가 필요했다. 어디에나 있는 보통의 일자리가 아닌, 이곳 아와지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했다. 그런 간절함에서 2012년 ‘아와지 일하는 형태 연구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아와지를 일구는 여자’라는 별명을 가진 야마구치 구니코였다. 1969년 아와지섬 스모토시에서 태어난 그도 고등학교를 마치고 고향을 떠나 오사카 미술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타일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고향으로 유턴했다. 고향 스모토에서 시민공방을 운영하다 2005년 <아와지섬 아트센터>를 설립한 뒤 매년 여름 ‘아와지섬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예술 축제를 통해 인재들을 섬으로 초대한 뒤, 지방정부를 설득해 후생노동성의 ‘지역고용창출사업’ 공모에 참가하였고, 2012년부터 4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일자리 창출사업을 이끌었다. 후생노동성의 지원이 종료된 뒤, 2016년에는 <하타라보섬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야마구치 구니코는 연구섬 프로젝트에 참여할 다양한 인재들을 찾아가 만나고 모았다. 아와지섬이 가진 독특한 매력들을 상품과 서비스로 만들어냈다. 그냥 일자리가 아닌, 오래오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일하는 형태 연구섬’이란 프로젝트 이름을 지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프로젝트 4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아와지섬에서 일을 찾는 사람들을 초대해 18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또 이들을 도울 해당 분야 최고의 강사들을 섭외해 강사진을 구성하였다. 각 연수 프로그램은 10회 또는 12회 정도 지속되었고, 원래 목표했던 ‘아와지섬다운 창업’의 결실을 풍부하게 거두었다.

4년 동안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와 상품들은 다채롭다. 섬에서 키우는 가축의 분뇨나 채소 쓰레기를 처리해서 만든 유기비료 상품을 비롯해,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섬에서 재배한 밀감 추출물에 허브 향을 더해 만든 에센셜 오일, 아와지 특산품으로 만든 조미료 선물세트, 이곳 과일과 채소로 만든 잼까지 아주 많다. 아와지섬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들도 새롭게 나왔다. 카네이션 생산지에서 꽃을 통해 자신을 만나고 표현하는 관광 프로그램도 인기다.

연구섬 프로젝트로 문을 연 가게들도 많다. 사무실 겸 카페, 공유사무실, 갤러리가 있는 복합공간, 직접 농사지어 만든 음식을 파는 식당, 아와지섬의 오래된 생면을 이용해 파스타를 만드는 이탈리아 식당, 아버지의 고깃집을 이어받아 새로 창업한 크로켓 가게, 4대째 내려온 포목점을 이어받아 재창업한 양복점, 이벤트 기획회사 등 많은 가게들이 아와지섬에 문을 열었다.

2022년 8월 23일 화요일 오전 아와지섬 스모토시에 있는 <시마토웍스>를 방문해 도미타 유스케 대표와 인터뷰를 했다. 과거 기린맥주를 팔던 술집이었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카페, 공유사무실, 게스트하우스로 알차게 쓰고 있었다.

도미타 유스케 대표는 1981년 고베 출신으로 오사카공대 건축과를 졸업한 뒤 도쿄의 건설회사에서 일하다가, 2012년 연고가 없는 아와지섬에 와



옛 술집 건물을 리모델링한 '시마토웍스' 사무실 앞에서 기념촬영 (왼쪽에서 네번째가 도미타 유스케 대표)

서 야마구치 구니코와 함께 연구섬 프로젝트의 실무자로 일했다. 그해 섬(shima)과 일(works)을 함께 엮어 일한다는 뜻에서 기획회사 <시마토웍스>를 창업했다.

처음에는 연구섬 프로젝트 연수에 참여했던 펜션, 농가와 협업을 했고 이후 아와지섬의 재료를 활용한 상품개발, 이벤트 기획, 브랜딩,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 현재 직원은 4명이지만 일본의 대기업 CEO 대상 연수 프로그램도 맡아 한다. 우리 일행이 방문하기 직전 파나소닉 회사 CEO들이 여기서 2박3일 전략회의를 했다고 들었다.

도쿄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물으니 없다고 한다. 도쿄보다 아와지섬이 마음 편하고, 회사의 컨셉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인데 이곳이 그런



한국 손님들에게 막걸리를 대접한 야마구치 구니코 선생



'아와지섬을 일구는 여자'와 '한국 지역을 일구는 남자'



야마다 유코 부부와 함께

마음을 들게 하는 곳이다. 2017년부터 일과 휴식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케이션'을 실천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베트남 한 달 살기를 시작했고, 베트남에서도 새로운 일을 기획 중이라며 환히 웃는다.

그날 오후 이번 일본답사에서 가장 만나고 싶었던 여인 야마구치 구니코를 마침내 만났다. '아와지를 일구는 여자'에게 나의 책 <천천히 재생>에 '한국의 지역을 일구는 남자'라고 써서 선물했다. 아와지시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예쁜 집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야마구치 선생은 맥주와 막걸리까지 준비해주어 깜짝 놀랐다. 사람들을 세심하게 대하고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임을 직감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무렵 4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130년 된 집은 거의 폐가였는데 건축가 도미타 유스케의 도움으로 멋지게 고쳤다고 했다.

야마구치 선생과 헤어진 뒤, 아와지섬에 이주해와서 행복하게 일하며 살고 있는 야마다 유코 부부가 운영하는 농장을 찾아갔다. 같은 대학에서 농업을

전공한 두 사람은 졸업 후 각각 농업회사에 다니다 결혼한 뒤에는 이곳 아와지섬에 와서 야마다 농장을 일구고 있다. 야마다씨가 딸기를 키우면 아내 유코씨는 잼을 만든다. 딸기 이외에도 아와지섬의 풍성한 농산물을 가공해 전국에 판매하며 행복하게 산다고 했다. 일본의 로컬, 아와지섬에서 행복하게 일하며 살고 있는 야마다 유코 부부의 해맑은 미소 뒤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더 곱게 보였다.

2017년 출간된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의 책에 아와지섬의 연구섬 프로젝트 이야기가 자세히 실려있다. 인구 1만 명도 안 되는 산골 마을 가미야마에 전국에서 인재들이 찾아오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모두 떠나갔던 아와지섬에 젊은 인재들이 찾아와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지역창업의 사례는 아주 많다. 2021년 한 해 연구년 기간 동안 여러 지역을 돌아보면서 로컬에서 더 행복하게 일하며 사는 많은 청년들과 중장년들을 만났다. 로컬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행복한 일과 삶을 찾는 이들에겐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예수님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도 성 안드레아

윤인복 소화데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갈릴래아 벳사이다 출신의 성 안드레아(St. Andrea, 1세기경)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며 요한 세례자의 제자였다. 시몬 베드로처럼 어부로 일하던 중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어, 안드레아는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섰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안드레아는 첫 사도 중 한 사람이었기에, 그리스 전통에 따라서,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으로 프로토클레토스(Protokletos)라는 칭호로 불렸다.

복음서에서 안드레아는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요한 6,1-15)에서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 필립보와 안드레아에게 먹을 것을 사 오라고 하였으나, 그중 안드레아는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찾아 예수님께 인도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청하여 안드레아는 예수님께 말씀드렸다(요한 12,20-6). 또한 성인은 형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다.

안드레아가 어디서 설교하고 죽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전하지 않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리스 아카이아의 파트라이에서 순교했다고 한다. 안드레아는 밧줄로 십자가에 묶여서 순교했다고 전하며, 후대에 그 십자가가 X자형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성 안드레아 십자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성인의 유해는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다가 그리스의 파트라이로 옮겨졌다. 그후 13세기 이탈리아 아말피의 성 안드레아 성당으로 옮겨졌고, 15세기에는 성인의 두개골이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 모셔졌다. 마침내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가 그리스 정교회와 이룬 화해의 상징으로 성인의 유해를 다시 파트라이로 보냈다.

만남의 순간

겐네사렛 호숫가에서 안드레아와 시몬 베드로 형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니 뜻밖에도 찢어지기 일보 직전으로 그물



프랑소아 두케스노브, 성 안드레아, 1640년,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에 고기가 가득 잡혔다. 베드로는 호숫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잡은 고기들로 두 배를 가득 채웠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거장 라파엘로(Raffaello Sanzio, 1483-1520)는 <고기잡이 기적>에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처럼 인물들을 묘사했다.

큰 호숫가에 각각 세 사람씩 탄, 두 척의 배가 떠 있다. 왼쪽 배에는 이미 물고기가 가득 차서 넘치고 있고, 오른쪽 배에는 사람들이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온 힘을 다해 끌어 올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왼쪽 맨 앞에 앉아 계신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제자로 삼으려 계획하고 오신 것처럼 주저함 없이 “나를 따라오너라.”하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두 형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듯하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무엇인가 간곡히 청하고 있

고,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보인다. 베드로 뒤에 양팔을 벌린 안드레아 역시 몹시 놀란 표정이다. 예수님의 제자란 자리는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했는지, 예수님께 자신은 죄 많은 사람이니 자기에게서 떠나 달라고 했다. 그의 간청의 목소리가 그림 속에서 들리는 듯하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오른쪽 배에는 제베대오가 배를 젓고 그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한 마리의 물고기라도 더 담긴 그물을 끌어 올리려는데 여념이 없다. 그러나 두 형제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바로 곁에 있는 아버지조차 버려두고 떠난다.

그림 앞에 정수리가 빨간 두루미들이 눈에 띈다. 정수리에 빨간 관을 쓴 것과 같다고 해서 단정학(丹頂鶴)이라 하는데, 교황의 품위를 드러내는 모자를 상기시키기에 교황권을 상징한다. 또한 두루미는 충성을 상징하고 한번 인연을 맺으면 짝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 두루미들이 제자가 될 어부들 앞에 자리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은 충실한 믿음과 교회의 반석으로 예수님과 여정

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할 것을 암시한다. 선택된 어부들은 하느님의 자녀로 혈육을 나눈 형제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두루미들 옆에는 뒷걸음질 치는 가재가 있는데, 이는 두루마리와는 달리 옆걸음질 또는 뒷걸음질 치는 가재의 걸음 형태에서 우왕좌왕하는 나약한 믿음이 연상된다.

감사의 순간

베네치아 화가 자코 로부스티(Jacopo Robusti, 1518-1594), 일명 틴토레토(Tintoretto)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마무리 지어주는 화가로, 이탈리아 바로크 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일조하였다. 그의 회화는 극적인 빛의 사용과 인물의 과장된 동작과 역동적인 구성으로 급하고 짧은 필치로 그림의 마무리가 부족하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거친 붓 터치로 칭송받았다.

<빵과 물고기의 기적> 장면에서도 거친 붓 터치와 인물들의 과장된 형태와 몸짓을 찾아볼 수 있다. 틴토레토는 등장인물들을 사선으로 연결하고 있으며, 빛과 어둠을 강렬하게 대비시켜 극적인 효과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라파엘로, 고기잡이 기적, 1515년경, 캔버스 위에 부착한 종이에 목탄 드로잉과 채색, 360x400cm,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런던



틴토레토, 빵과 물고기의 기적, 1570년경, 캔버스에 유채, 118x140cm, 스탠리 모스 컬렉션, 뉴욕

미술에 예수님이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5세기경이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에 목자의 지팡이를 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후 점차 자연스러운 풍경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거나 빵을 나누어 주는 모습 등이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해 빵과 물고기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틴토레토는 성경의 기록대로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가량”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 화면 왼쪽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필립보가 든 물고기 두 마리나 안드레아가 든 보리 빵 다섯 개를 축복하고 계신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왼쪽에 음식을 가져온 아이를 향한 채, 빵을 떼어 그 아이에게 주고 계신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마련하실 수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가 내놓은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정도의 음식으로 바꾸셨다. 그림에서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빵을 떼어주는 것은 하느님께 사랑으로 봉헌한 영적 음식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오른쪽에 두 여인이 보인다. 한 여인은 갓난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다. 어머니는 배고픈 자신의 아기에게 갈증과 허기를 채워주고 있다.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 마음처럼 예수님도 고단한 일상과 허기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굶주림과 배고픔에 허덕이지 않게 하신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하늘의 새들, 피조물)을 먹여 주신다.”(마태 6, 26) 화면 중앙에는 이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모습이 보인다. 계속해서 그 너머 언덕과 배경에는 오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것이다. 물질·영적 허기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가없이 여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은총의 순간

작품 속에서 성 안드레아는 보통 흰머리와 수염이 있는 나이 많은 모습으로 표현되곤 한다. 그의 주제로 순교 장면이 주를 이루며, 성인은 X자형 십자가나 그물, 또는 물고기를 들고 등장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바로크 화가 마티아 프레티(Mattia Preti, 1613~1699)는 극적인 명암 대비와 등장인물들의 운동감과 공간감 등 바로크 미술의 고전적이면서 자유로운 회화적 요소를 통해 안드레아의 순교 장면의 생생함



■ 마티아 프레티, 십자가에 매달리는 성 안드레아, 1622-28, 발레의 성 안드레아 성당, 로마

을 전달하고 있다. 집행인들은 커다란 X자 모양 십자가 위에 성인을 밧줄로 묶고 있다. 이들은 모든 힘을 다해 그를 십자가에 최대한 양팔과 양발을 벌려 단단히 묶으려 한다. 집행인들의 행동에 성인은 아무런 저항이 없다. 자기 몸을 온전히 하느님의 의지에 내맡기려는 순응의 자세다. 양팔이 쪽 벌려진 채 밧줄에 묶이고 있는 성인은 눈을 하늘로 향하고 있다. 그에게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는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몸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내맡겨버린 듯한 표정이다. 안드레아는 지금의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은총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하늘에는 두 명의 아기 천사가 성인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 한 천사는 순교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 다른 한 천사는 금장식의 관(冠)을 손에 쥐고 있다.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고 신앙을 목숨과 바꾼 성 안드레아가 순교의 영광스러운 월계관을 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나를 따라오너라.”(마르 1, 17). ☞



[가톨릭직장인] 후원금 안내

-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뒷면에 광고 게재 가능)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 후원금 보내주실 때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톨릭직장인] 모임교재, 편집팀 봉사자 모집

- [가톨릭직장인] 월간지 발행을 함께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편집팀: 월간지 기획 및 편집, 교정
 - 모임교재: 월보 속 "신앙의 삶" 나눔 원고 기획
 - 문의: 02-727-2078

2022년 예비자교리 현황

2022년 직장공동체 예비자 교리를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비자교리를 하시는 예비신자들이 위하여 기도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교리기간: 4월 18일~11월 11일, 총 30주, EDWITH를 이용한 비대면 교리
- 참고피정: 11월 12일(토) 09시 30분~16시, 영성센터 B201
- 세례성사: 11월 20일(주일) 13시 30분, 명동대성당
- 문의: 02-727-2078

교우회명	국회	서대문구청	시립은평병원	제주항공	SC은행	총
인원	3	1	2	2	2	10명

올해는 우리농산물 대풍년일세!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서는 매해 안동, 청주, 마산, 광주, 전주교구에서 생산한 **유기농 쌀을 공동수매**합니다. 공동수매의 이유는 바로 '지속가능한 농업'입니다. 이러한 수매를 통해 가톨릭농민회원들은 재고관리, 판로에 대한 고민 없이 생명쌀 농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쌀 수입량 확대 요구 등 여러 대외적인 악조건들 속에서도 농민들이 흘린 땀으로 올해 쌀농사는 풍년입니다. 그럼에도 45년 만에 쌀값은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농민들은 수확기에 밭을 갈아엎거나, 삭발하며 농업을 지켜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의 최전선에는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지속해서 생명쌀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세요. 그것이 곧 우리의 밥상을 지키는 길이요,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가톨릭회관 1층 우리농 명동나눔터, 우리농 장보기 홈페이지를 통해 가톨릭농민회원들이 정성스레 키운 다양한 생명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대교구 직원(우리농 회원)의 경우 명동나눔터 구매시 5% 할인이 적용됩니다.



▲ 우리농 장보기



Good Shepherd

A title of Jesus, based on a passage in the Gospel of John, where he says,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giveth his life for the sheep," and "I am the good shepherd, and know my sheep, and am known of mine." The metaphor of God as a shepherd is also found in the Old Testament. The Twenty-third Psalm begins,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and a passage in the Book of Isaiah says that God "shall feed his flock like a shepherd: he shall gather the lambs with his arm." (Icon Design by Darius Dan)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